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 저 캄캄한 ‘양지’ 의 꿈 석관동 중앙정보부 옛 청사

글 · 김기선 ningirsu@naver.com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폭우가 한 차례 지나간 뒤 날은 더 무더워졌다. 지하철 1호선 신이문 전철역사를 무심히 빠져나오던 나는 숨 막히는 지열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어지러웠다. 비에 씻긴 태양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는 무엇이든 걸리기만 하면 통째로 녹여 버리겠다는 듯이 지글거렸다.

층계참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문초등학교를 지나 이문삼거리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만난 동네 풍경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 서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완만하게 경사를 이룬 언덕길 양쪽에 촘촘히 들어선 낡은 주택과 점포, 술집들, 그것들 사이로 미로처럼 이어주는 비좁은 골목과 계단에는 오랜 세월의 더께가 앉아 있었다.

의릉·한국예술통합학교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을 따라가노라니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로 단장한 능 입구가 나타났다. 흰하게 트인 능 입구는 저 북닥거리는 산 아래 동네와는 격이 다르다는 듯 진한 술향을 뿜어내고 있었다.

## 정치의 무덤, 의릉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산 1-5번지. 수려한 천장산 자락에 자리한 의릉은 조선 20대 임금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이다.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로 태어난 경종은 당쟁의 와중에서 어미를 잃었고, 즉위 4년 만에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37세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엄연히 1970년에 조선왕조 사적 제 24호로 지정된 왕릉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의릉이란 이름은 아직 낯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천장산 정상에 레이더가 설치되었고, 주변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출입통제구역이었다.

의릉의 수난은 1962년 중앙정보부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제일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읍·면제가 폐지되었고, 농협이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 민주적·자치적 성격을 띠는 모든 제도가 폐지되었다. 바야흐로 정치는 죽고, 정보와 공작이 판치는 기괴한 세상이 열린 것이다.

정치의 죽음을 발판으로 한 중앙정보부의 탄생은 낭비와 비효율을 극도로 혐오하는 군인 체질에 딱 맞는 것이었다. 군인들에게 정치는 낭비요, 민주주의는 비효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고심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의릉을 낙점했다고 한다. 왕릉 중에서 중앙정보부 청사 자리를 고르라고 조언한 이가 박정

희라는 설도 있으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둘 중 누구 아이디어였든 간에,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치공작 센터로 왕릉을 선택한 것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정보장교 출신들다운 절묘한 발상이었다.

왕릉 부지를 꺾찬 중앙정보부는 1995년 국가정보원이 내곡동 신청사로 이전하기 까지 30여 년 동안 ‘정부 위의 비밀 정부’로 군림하며, 의릉 경역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훼손했다.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었으며, 인공 연못과 일본식 정원, 잔디구장을 조성했다.

의릉 밑에는 양지못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인공 연못이 있었다. 왕릉 아래 못을 파다고 해서 이 씨 종친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양지못에는 서술 퍼런 시절에 생겨난, 코미디 같은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왔는데 ‘정보기관이 한창 잘 나갔던 중정 시절에는 양지못 붕어아비(금붕어를 관리하는 직원)가 고향에 내려가면 군수가 직접 영접을 나왔다.’ 고 한다.(김기삼, 『나의 국정원 체험기』, 『주간 일요서울』)

김기삼에 의하면, 깜깜한 ‘정치의 무덤’에 누워 모진 세월을 견뎌온 가여운 왕 경종이나, ‘권력의 일들’에서 소외된 채 허리에 철조망을 두른 천장산을 ‘중앙정보부 산’이라 부르며 경원했던 국민들이나 당시 ‘양지못 붕어아비’ 만도 못한 존재들이었던 셈이다.



**못해도 수심은 족히 죽어나갔던 곳**

중앙정보부 옛 청사는 텅 비어 있었다. 최근 까지 이 건물을 무상임대 해 쓰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청사 뒤편에 새 캠퍼스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청사 외관은 전형적인 관료풍이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나 수용자 시설이 흔히 그렇듯 쇠창살로 유리창을 막은 솜씨나, 획일적으로 구획된 공간들이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갑갑했을까.’ 안쓰러운 느낌이 들 정도였다. 남다른 점이 있다면, 사각 콘크리트 건물 중앙에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는 폭격을 맞을 경우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라 한다. 청사 구석구석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은 황석선 사진기자를 유심히 살피던 중년 사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오시길 잘했어요.”

“왜요?”

“수일 내로 위령제 지내고 싹 다 철거됩니다.”

의릉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중앙정보부의 첫 번째 청사이자 본청인 이곳은 음습한 공작정치 밀실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중정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 한 곳이었다.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곳도 이곳이었고, 동백림 간첩단 사건 등 굵직한 해외 간첩단 사건들을 ‘만들어’ 낸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중앙정보부 첫 번째 청사이자 본청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어 학교 내부 시설물은 모두 옮겨졌고 철거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의릉에는 소나무들이 많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지만 한국 현대사의 뒤틀린 권력의 역사가 이곳에 존재했는지 알 길이 없다.

1972년 남산 중앙정보부 분청이 ‘고문의 새 강자’로 등장하기 전까지 이곳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일’ 빼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바로 그곳이었다. 이 쓰라린 역사의 현장이 정확한 과거사 규명도 없이 역사의 바깥으로 사라진다니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

“위령제는 지낸대요?”

“그럼! 못해도 여기서 수십은 죽어나갔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지하실은 사진으로 찍어 둘 만할 거요.”

그러나 지하는 이미 전원이 완전히 내려진 상태였고, 공사장 감독은 후래시라도 켜고 내려가게 해달라는 우리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10년 전부터 영화과 학생들의 편집실로 사용했던 지하실 출입의 철거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통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긴 복도를 따라 두 평 크기의 골방이 쪽 이어져 있다는 학생들의 증언에 기대어 지하 공간의 모습을 상상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고문수사의 망령 탓인지,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유난히 괴담이 많다. 양지못 준설을 위해 바닥의 흙을 파내자 시체 3구가 나왔다는 등, 새벽 3시면 방마다 노크소리가 들린다는 등, 수직상승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등…….

진실이 파묻힌 곳에 괴담이 돌기 마련이다. 실제로 1960년대 양산한 많은 간첩단 사

건의 연루자들이 이 석관동 청사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천상병(시인)·윤이상(작곡가)·이응로(화가) 같은 예술가들이 간첩사건에 휘말려 이곳에서 치도곤을 당한 대표적인 인사들이지만, 당시 이곳에 끌려온 사람 중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간첩’, ‘북한’ 이라면 벌벌 떠는 세상에서 고문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평생을 견고한 침묵 속에 살아온 그들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인터뷰이 한 명 없이 이 쓸쓸한 역사의 현장을 답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동백림 사건 이후 독일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살아온 이수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옥 같은 고문의 기억을 상세히 털어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 전기고문이다. 전 기선을 양손 새끼손가락에 각각 감는다. 한 사람은 물을 먹이고 다른 한 사람이 야전용 전화기 손잡이를 돌려 전기를 일으킨다. 손잡이를 빙빙 돌릴 때마다 전기가 팍팍 쏜다. 악랄하게 할 때는 한 쪽 선은 손가락에 그리고 다른 한 쪽 선은 생식기에 접촉하고 전기를 넣는 것이다. 그러면 대개 정신이 나가고 기절해 버린다.

보통 의자에 앉혀놓고 전기고문을 하는데 전기가 몸에 들어오면 그 충격 때문에 누구나 다리가 부들부들 떨게 되어있다. 그 당시 나는 왼쪽 다리가 마비상태여서 떨지 않았다. 고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다리가 떨릴 때까지 전기의 강도를 높였다. 정신을 잃고 나중에 깨어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도 마비시켜 놓겠다고 겁을 주며 원하는 대답을 유도했다.”

### ‘양지’는 없다

1972년 남산 분청이 세워지면서 석관동 본청과 남산 분청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

▲ 철거를 기다리는 본관 내부  
▼ 지하실 입구, 밖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창문조차 제대로 없다. 건물 구조와 시설물을 보아 중앙정보부의 모습을 짐작할 만하다.



졌다. 남산은 주로 국내 분야를 담당했고, 석관동은 해외 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석관동 본청은 국내외 전 분야에 걸쳐 끼어들지 않는 데가 거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병충해에 강한 다수확 품종 개발에 혈안이 되었던 1964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요원들을 시켜 이집트에서 벼씨를 훔쳐왔다. 1966년 북한이 잉글랜드월드컵 8강에 진출하자 중앙정보부는 ‘우리는 음식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을 딴 ‘양지축구단’을 창단했다. 양지팀 선수들은 군 복무를 대신하면서도 실업팀 수준의 월급을 받는 등 특급대우를 받았고, 석관동 중앙정보부 내 잔디구장에서 맹훈련을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중앙정보부 강당으로 향했다. 다른 건물들은 경종과 선의왕후의 봉분을 중심으로 좌우 흩어져 있는데, 이 강당은 봉분과 의릉을 둘러싼 천장산 사이에 놓여 있어 2층짜리 낮은 건물임에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원래는 의릉 복원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강당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2004년 등록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었다.

국가정보원이 내곡동 청사로 이전하면서 10년 이상 방치돼 온 탓에 강당 외벽은 칠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가는 등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당시의 화려한 면모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퇴락해 있었다. 100석이 조금 넘는다는 141평 넓이의 강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쇄돼 있었고, 그 절반 크기의 회의실만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실내는 오히려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화려한 상들리에, 폭신한 탄성이 지금도 살아 있는 두툼한 카펫, 무궁화가 새겨진 거대한 탁자, 가죽 의자, 수세식 화장실 등이 당시 권력 수뇌부들이 모일 법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수십 년 전 어느 여름날, 동네 반장집 흑백TV 수상기 앞에 모여서 이후락의 발표를 지켜보며 무슨 대단한 일이나 난 듯이 감격해하던 어른들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른다. 당시 남북공동성명 내용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지금쯤 통일의 문이 열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은 그해 말 박정희의 유신헌법과 김일성의 사회주의 개정헌법의 모태로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사실상 용도 폐기되고 말았다. 비단 ‘7·4남북공동성명’ 뿐인가. 분단이 이후부터 최근의 ‘6·15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던 회의실





북관계를 둘러싼 모든 협의와 선언들은 양측 권력자들에게 정략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축구단도 ‘양지’, 기숙사도 ‘양지관’, 심지어 왕릉 발치에 판 연못의 이름도 ‘양지 못’으로 지을 만큼 유난히 ‘양지’에 집착했던 석관동 중앙정보부. 아마도 그것은 영원히 권력의 음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현재 국정원이 옮겨 간 곳은 태종의 묘소인 현릉 옆이다. 과거를 능멸하고 현실의 권력만을 좇는 습성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미래에 ‘양지’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김기선*

---

글 김기선 | 1965년 서울 출생. 평전 작가. 저서로는 「저는 열네 살 선영이에요」, 「전태일」, 「김진수」, 「최종길」,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이 있다.